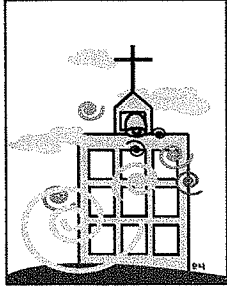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 망치는 전도

-어느 작은교회 전도사-



무임 전도사로서 7년동안 한 작은 교회에 머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유정이, 은수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유정과 은수는 둘도 없는 친구로 초신 어린이 들입니다. 그런 새싹 같은 어린이들이 벌써 교회를 옮겼습니다.

사모님 말씀으로는 한 10킬로 떨어진 큰 교회에서 전도(?)를 해 그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교회가 작고 저는 너무 멀리 교회에서 떨어져 있기에 사모님 혼자서 토요일에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큰 교회에서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신다고 하더군요. 5~6명의 선생님들이 봉고차에서 내려 하교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까지 과자와 선물 공세로 전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10킬로나 떨어진 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 데려가는 아픔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더 더욱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은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을 자신이 섬기는 새 교회에 데려가는 모습까지도.....

저는 전도를 할때, 그리고 어린이들을 전도시킬때, 항상 주지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 어린이의 믿음을 망치는 일이다” .

8살 먹은 아이가 일년동안 3-4군데 교회를 옮기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과연 그 아이만의 잘못인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데려간 그 어린이 한명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그랜 그랫지▶ 용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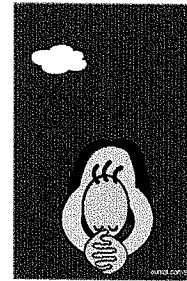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광고카피 문구중 이만큼 깊은 인상을 준 문구도 있을까? 다른 어떤 말이 필요없이 짧은 광고카피 하나로 '보령제약 용각산' 을 이름 날리게 했던 그 때, 갈 수만 있다면 이처럼 단순한 것이 가슴을 잡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24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6월 13일
☎520-9464/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을..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의 지주가 된다는 것을..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돈으로 인간의 품격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필리핀의 노 사제 페페 신부가 불치병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쓴 글-

◀남편 십계명▶ 사 랑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진다 “

◀아내 십계명▶ 사 랑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걱정은 작아진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어린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응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9장	다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9 (빌 2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82장	다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9:14-29 (마17:14-21 눅 9:37-4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기도로 믿음으로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02장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6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설거지
6	김반석	이근평	4구역
13	김순자	이기중	5구역
20	김영길	이재운	청년부
27	김종건	이수자	6구역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1. 교우소식
<안녕히 가세요> 강순남 집사, 종업, 종취, 착한 쌍둥이 형제들... 그동안 함께 신앙 생활하여 행복했습니다. 25일(월) 5:30pm Air NZ
<한국방문> 정종일 집사,
<한국방문 후 귀국> 조영자 집사
<등록> 김용석, 최신덕 성도(4선, 3구역), 성원, 성은, 형진
☎522-9301 ☒ 28 Seccombes Rd. Epsom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5일(화) 오후 1시 Hall
*여성교우들 누구나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이기에 더욱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습니다
3. 지난 주일 청년들의 "교육관건축모금을 위한 음식판매" ...
젊은이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예쁜 마음과 그들을 응원하는 교우들의 부모같은 마음에 음식은 모자랐어도 체감온도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Tennis를 좋아하는 교우들의 친선Game
<일시> 오늘 오후 3시- 7시 <회비> \$20 <신청> 김영길 집사
<장소> Beach Heaven Sports Centre (Cresta Ave, Beach Heaven)
<Tennis Club 회장> 양경배 집사 <진행> 김영길 집사
*비바람 불던 지난주일 일기에 오늘 다시 갖습니다. 역시 따끈한 어묵, 호젓한 분위기의 코트가 응원가족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대낮같은 조명 또한 분위기를 거들어 줍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5. 본교회 "교육관건축과 오르간수리" 헌금 <\$55,640.44 >
*Hall 에 비치된 "교육관 건축" 계획서를 친교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6. 다음주일 "은 십자가 성가대" (예고): 제3여선교회
7.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pm>
*추운 겨울 수요일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훗날 잔잔한 찬양과 우리의 간구와 말씀으로 채워졌던 수요일 밤이 따뜻한 겨울밤으로 남아 있기를....

영화구경 김성국	버스에서 가방을 받아 안고는 가슴 뛰던, 어느 날부터 소꿉친구에게 얼굴 붉어지던, 길에서 마주치면 결눈질로 지나치며 심장 뛰던, 어찌다 스친 손길에 이 세상 그 보다 더 부드러움은 없을 것 같던... 새끼 강아지들이 처음으로 눈 떠 물기 초롱한 눈동자 반짝이듯 어린아이만 같던 소년소녀들의 눈 떠가는 풋내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to Sir with love를 들던 그 마음으로.
-------------	---